

94. 6월

(國 內)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조성한 외화표시 원화대출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지원대상 품목도 92년 1월 이후 개발 완료된 2년 이내의 국산기계로 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中 國)

중국의 3대 발전설비 메이커 가운데 하나인 東方電機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및 독일 지멘스와 잇따라 합작회사를 설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멘스와는 발전능력 600kW 이상의 화력발전설비 및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회사를 연내 설립할 계획으로 출자비율은 지멘스 51%, 東方電機 49%로 예상되고 있다. GE와는 현재 수력발전설비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기업화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國 內)

정부는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고도기술범위를 전면 조정해 「전략적인 고도기술」을 재선정하고 이 기술과 관련된 시설재를 도입할 경우 내년중 투자한도내에서 최고 1백%까지의 상업借款을 허용키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조정, 오는 98년에는 현재의 50%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과 고도기술 수

반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충작업도 연내 실시키로 했다.

(베트남)

베트남 정부가 일본기업에 대해 발전소 건설사업 등 모두 12개 안건의 프로젝트에서 BOT(건설운영양도)방식에 의한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프로젝트 중 발전소 건설과 관련, 쿠안닌 지역의 120만kW급 가스터빈 화력발전소, 콘쑤지역의 12만kW급 수력발전소 등 4건인데 총 투자액은 약 25억 달러에 달한다.

(國 內)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中小企業 제품구매가 생산자단체를 통한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뀐다. 또 부도가 나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등 재무상태가 취약한 건설업체가 공공공사를 수주하면 부실공사의 위험과 공사이행의 지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올해 자동차 축전지 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한 65만개에 머물 전망이다. 지난해의 자동차 축전지 수요는 겨울의 온화한 날씨와 시장의 혼란으로 전년 대비 약간 상승한 65만개였으며 올해 수요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용 전자제품인 카스테레오, 팩스기 등의 개발로 최근 소비자들은 구입시 여러 전자제품의 변동스런 전력소모를 소화할 수 있는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양

상이 나타나고 있다.

(國 內)

정부는 EU와 상호인정 협정체결을 적극 추진, 양측의 인정기구가 공인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제품시험 성적서를 상호 인정토록 하여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업체들의 對EU 수출입시 이중검사를 받지 않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공진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위해 EU에 전기전자분야·원구류 등 14개분야 460개 품목을 상호인정 협상대상품목으로 선정·제시하고 하반기중 예비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日 本)

일본의 전기업체가 기업활동에 따른 환경에 악영향을 줄이는 '환경관리 및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전국레벨로는 처음으로 '일본환경인증기구'(JACO)를 오는 10월 설립할 계획이다. 이는 유력한 수출대상지역인 유럽연합(EU)이 내년 4월 환경감사를 도입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격에 의거한 환경감사를 정비하지 않으면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계가 독자적으로 설립하게 된다.

JACO는 히타치제작소·도시바·NEC·마쓰시타전기 등 전기업체의 유력 10개사가 자금 및 인력을 제공하여 주식회사로서 30~40명의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멕시코)

멕시코의 8전기드릴 생산업체는 미국 투자회사인 Black & Decker

1개社 뿐이며 이 회사는 소매 가격 100弗 이하의 가정용 전기드릴을 조립, 판매하고 있다. 연간 생산액은 300만弗 정도이며 생산제품중 20~30%는 미국 등지에 수출하고 나머지는 자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전기드릴의 주요 수입선은 미국, 스위스, 브라질, 독일로 이들 4개국이 전체 수입시장의 85%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Bosch제품의 판매확대로 독일로부터 수입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만산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92년 수입이 급증했으나 품질면에서 뒤져 93년에는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國 內〉

중소기업공제사업자금을 대출할 때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되고 처리기간도 단축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제기금 이용업체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공제대출금 영수증과 지급계산서 제출을 생략하고 약정 때 구비서류인 회사정판과 이사개인 인감증명서 제출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臺 灣〉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만은 전국에 걸쳐 전기공급을 제한, 배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영대만전력회사는 여름철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 140만kW나 모자라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에 따라 제한전기공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世 界〉

세계은행이 내놓은 1994년도 세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48개국의 '사회간접자본지표'중 우리나라는 포장도로 길이가 3만4248.km로 세계3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용량(순간발전용량)은 2405만6천kW로 17위를 기록했다.

또 전력생산량(연간)면에서는 1187억4천만kWh로 148개국 가운데 17위, 전회회선은 1328만회선으로 8위를 각각 차지했으며 철로와 관개면적은 3091km와 134만5천ha로 39위와 25위에 올랐다.

〈國 內〉

한국전기연구소는 전력용 변압기와 배전용 변압기의 절연재료로 사용되는 절연유의 열화정도를 활성상태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측정기술은 기공세라믹을 주재료로 제작한 열화센서를 이용, 전력용 변압기와 배전용 변압기의 절연유 열화상태를 정밀분석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런 측정기술이 개발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

〈世 界〉

1990~2010까지의 20년간 서유럽의 전력수요는 중공업생산감소 등에 기인, 43%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파리소재 전력업계단체인 UN-IPED는 영국 버밍햄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향후 20년간 서유럽의 전력수요증가율은 연간 1.8%로 이 기간중 연간 GDP성장률 2.4%와 지난 70~90년의 연간 전력수요증가율 3.4%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1990년에서 2010년사이 서유럽의 각 전력부문별 시장점유율에 있어 원자력발전부문의 점유율은 34%에서 31%로 하락하고 석탄 및 석유에 의한 발전부문은 37%와 10%에서 29%와 6%로 각각 하락할 것으로 UNPEDE는 전망했다.

〈베트남〉

베트남이 일본차관 6억달러를 이용, 총 472메가와트 용량의 수력발전소 2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일본외무성의 대외개발프로젝트 금융담당관은 베트남 남부지역의 전력수요를 커버하기 위해 호치민시 동부 155킬로미터 지점에 함투안 및 다미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동 프로젝트가 님본 코에이, EPDC 등 일본기업들의 기술지원 하에 96년부터 베트남의 파워컴퍼니2에 의해 건설될 것이며 내년중 시행될 국제입찰에는 일본의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日 本〉

일본의 후지(富士)전기는 인버터의 해외전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사는 중국시장에서의 판로를 겨냥, 가까운 시일안에 深圳에 첫 번째의 서비스거점을 설립할 계획인 외에 코스트경쟁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아시아·歐美에 첫 해외 생산거점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기업화 조사에 들어갔다.

동사는 이러한 전략의 전단계로 최근 시스템기사업본부 鈴鹿 인버터제작소의 모터제어용 및 유도 가열용 인버터개발 제조 등에 국제품질보증규격인 ISO 9001를 취득했다. 이를 계기로 초콤팩 저소음

형 인버터 'FVR-CSS'의 국내에서의 용도 개척에 노력함과 동시에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중국 구미 등 해외전개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國 內〉

정부는 멀티미디어 등 7개 분야를 전자산업의 전략기술분야로 선정하고 이들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에 필요한 22개 기술개발프로젝트를 향후 3~5년간에 걸쳐 정부 지원하에 민관합동으로 추진, 개발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투자를 적극 유도, 민간주도의 기술개발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직접 지원할 프로젝트로 향후 파급효과가 큰 △멀티미디어 △정보의 산업화응용기술 △디지털 응용기술 △시스템 기술 △신개념의 전자정보기술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기술 △핵심 부품 등 7개 분야를 선정했다.

〈日 本〉

일본의 이토추상사는 베트남에서 전선케이블의 합작생산을 개시키로 했다.

올 가을까지 베트남중공업 산하에 있는 국영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 내년봄부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베트남의 전선케이블 수요는 현재 연간 2천톤 전후로 보이고 있는데 이 합작회사는 앞으로 수요 확대를 예상하여 연간 4천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日 本〉

일본에서는 변압기의 최대 중량 물인 철심과 코일을 분리하여 원거리 수송시 중량을 줄이고 수송 제약을 크게 해결할 수 있는 분해 수송방식(CGPA: Coil Group Packed Assembly)의 변압기를 개발하였다.

CGPA 변압기의 기술개발은 코일 절연물의 흡수방지 및 공장품질의 유지와 확인을 위한 공법과 검증기술을 확립하는 것으로서 적용기술은 최적한 책재료의 선정, 분해범위의 극소화기술, 현지 철심조립기술, 현지 조립용 클린하우스 등이 있다.

〈國 內〉

오는 97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일정액 이상의 물품구입이나 서비스 제공, 건설업무를 추진할 때는 반드시 國際入札이 실시돼 외국업체에도 참여기회가 주어진다. 재무부는 오는 97년부터 조달시장을 개방할 것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달물자 및 계약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中 國〉

中國이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안전검사 마크제를 도입,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해 수출입을 허용할 방침으로 있어 이에대한 국내 업계의 사전대응이 요망되고 있다.

중국 國家科技감독국은 오는 9월부터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엄격한 안전검사를 실시, 합격한 제품에 한해 對外수출 및 수입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중국은 이와 관련, 검사합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리장성 도안을 녹색 테두리로 둘러싼 안전검사합격 마크를 합격품에 부착토록할 계획이다.

안전검사 대상품목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인데 냉장고와 선풍기, 에어컨, TV등 가전제품과 통신기기 및 케이블 등 우리나라의 주종 전자제품들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국내업계의 對中수출과 투자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國 內〉

공업진흥청은 그동안 제조업체가 형식승인을 하면 모든 제품이 '전기용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형식승인이 길어짐에 따라 이달부터 신개발품과 신규업체의 품목 및 수입 전기용품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고 형식승인 구분만 다른 제품은 접수되는 대로 즉시 승인하는 등 전기용품 심사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심사가 면제된 전기용품은 신청후 2~3일 이내에 승인이 가능하며 심사 대상품목의 경우에도 배정처리 기간인 30일 이내에서 18일로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日 本〉

일본의 전기메이커들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로부터의 부품조달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수출이 주체였던 부품전문상사들도 수입업무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엔고가 이대로 정착되면 이같은 움직임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日本〉

日本の松下電池工業은 고성능 휴대 전화기, 비디오 카메라 등 휴대 기기의 電源으로 적합한 고전압(3.6V)이고 輕量이며, 또한 방전 전압의 평탄성이 극히 우수하고 높은 전기 용량과 에너지 밀도를 갖는 「리튬 이온 2차 전지」(원통형 2종류, 각형 1종류)를 개발하였다.

오늘날의 고도 정보화사회에서는 移種體通信(휴대전화, 무선기기 등)에서부터 비디오 카메라, PC등에 이르기까지 携帶機器에서는 그 편리성을 추구함에 따라 보다 小型化·輕量化 長期間 사용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 알칼리 건전지의 수요가 늘고 있다. 프랑스에서 연간 판매되는 건전지는 5억개, 매출액으로는 25억프랑으로 추산된다. 이중 일반 건전지가 전체시장의 대부분인 90%를 점하고 있으며 버튼형과 최근 선보인 리튬건전지 등 특수용 건전지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國內〉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다각화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완화에 기여해 왔으나, 중소기업이 장기간의 보호속에 안주해 자생력 배양에 소홀해지고, 개방화로 외국상품의 진출이 확대되어 고유업종지정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商工資源部는 앞으로 이

제도를 단순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극적 보호장치로서 보다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점차 경쟁요소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고유업종을 축소,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형 업종'으로서 해제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의한 독과점화의 우려가 있는 업종은 계속 존치기로 했다.

〈世界〉

미국의 電裝부품 벤처기업인 오보닉 배터리 컴퍼니(Ovonic Battery Co.)는 일본 본전기연공업(本田技研工業)과 전기자동차용 차세대 배터리의 공동개발에 합의하고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전기자동차에 탑재하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미·일 자동차 관련기업이 협동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본전기연은 이번 계약으로 OBC가 개발한 니켈·수소 배터리를 기준으로 실용화를 향한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OBC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니켈·수소 배터리는 종래의 배터리에 비해서 축전용량이나 내구성이 2배 이상되는 것으로부터 차량 탑재시의 저 코스트화가 도모된다.

또한 아연이나 카드뮴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 2차 환경오염도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한다.

〈國內〉

공진청은 ISO 9000 인증제도의 법적 실시근거가 되는 품질경영측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외국인증기관도 국내인 증기관과 동등하게 ISO 9000 인증

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인증요건을 갖춘 외국인증기관에 한해 ISO 9000기관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인 증기관은 LR QA(로이드 선급협회 인증기관), DNV QA(노르웨이 선급협회 인증기관), TUV(독일 검사기관) 등 약 7~8개 기관이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국내에서 법인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나 BSI QA(영국표준협회 인증기관) 등 일부기관은 법인 설립없이 ISO 9000 인증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코트랜드〉

스코트랜드의 글라스고 대학에서는 야영객이나 이동주택 생활자 및 측량자 등을 위하여 열전기 발전기(Thermo electric Generator)라고 하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장치는 한면을 가스 난로나 어떤 가열장치 위에서 가열하면 12V에서 20W정도의 전력을 발생하는데 이것은 소형 TV수상기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전지에 충전하고도 남을 만한 전기인 것이다.

또한 한쪽면을 물 또는 열 대류식 냉각 싱크에 고정시키고 다른 면을 부탄 열원으로 약 600°까지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현재 개발중인 다른 유사한 장치보다 앞선 것이다.

〈國內〉

정부는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권의협동화사업 참가업체 수를 종전의 5개 이상에서 3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상공자원부는 대도시권에서 동종 또는 관련업종으로서 협동화사

업의 공동추진 의사를 갖는 5개 이상 업체의 규합이 어렵고 이에 필요한 입지확보도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중소기업육성 관련 통합고시를 개정했다.

〈日 本〉

일본의 후지(富士)전기가 중국에서 릴레이 스위치의 현지생산에 나선다.

기술지원상대인 江蘇省의 전기메이커 無錫機床電器廠과 생산위탁계약을 체결, 금년 10월부터 연간 3백만개 규모로 OEM조달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 스위치의 국내생산을 약 30% 축소,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하청기업 2개사 가운데 1개사와의 구입계약을 중지하기로 했다.

동사가 릴레이 스위치를 해외생산하는 것은 처음인데 장차 국내생산 전망을 해외에 이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世 界〉

호주의 퍼시픽 던롭社는 인도네시아측과 함께 자카르타근교에 통신케이블 제조·판매 합작업체를 설립했다.

퍼시픽 던롭社는 自社가 올렉스 인도네시아社로 명명된 이 합작업체에 대해 60%의 지분을 소유하며 그 나머지는 인도네시아 케이블산업에 풍부한 경험을 소유한 현지인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퍼시픽 던롭社는 향후 이 합작업체에 3천만 호주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자카르타근교에 설립될 통신케이블 제조공장의 건설자금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

했다.

올렉스 인도네시아社는 95년말 정부터 일반통신케이블 생산에 착수할 예정이나 光케이블을 비롯한 여러 제품으로 생산품목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獨 逸〉

서독의 금속·전기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독금속·전기업협회(Gesamtmetall)가 1015개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70억마르크의 적자를 기록했던 서독의 금속·전기업계는 올해도 상황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日 本〉

일본의 住友전기공업은 미국의 대규모 CATV(유선 TV)시스템 판매회사인 언텍社(일리노이주)와 10월중 광파이버케이블을 제조 판매할 합작회사를 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동사는 지금까지 100% 미자회사인 SEFOC사에서 광파이버를 제조, 공중통신 시장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 멀티미디어시대에 유망한 CATV시장에서의 수주 증가를 겨냥, 이 시장에서 강력한 영업력을 가진 언텍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SEFOC사는 새 회사에 자산을 양도, 금년안에 청산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타이어 및 케이블메이커인 피렐리社는 말레이시아로부터 900억리라 규모의 광섬유통

신 네트워크 공급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피렐리社는 케이블부문 자회사인 피렐리 카비社와 타임-텔레콤 말레이시아社 대표간에 체결된 공급계약하에 향후 데이터·음성·비디오화상을 통합전송하는 첨단 광섬유통신 네트워크를 말레이시아에 공급·설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國 內〉

정부는 올 하반기 중소기업자동차사업의 지원대상을 제조업 전업률이 50%이상인 중소 제조업체로서 금융거래가 정상적이고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했다. 단 이전조건부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는 이전 유예기간이 2년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기존 공장면적내의 자동차설비 개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신·증설은 계속 불허하기로 했다.

〈世 界〉

일본의 도시바전지는 美 전지 최대규모 듀라셀社(코네티카트주) 및 독일전지 최대규모 펄타社와 공동으로 오는 96년말까지 미국에서 니켈수소 2차전지의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 전지는 신세대의 전지로 휴대전화와 휴대퍼스컴용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새 공장건설 현 세계생산량의 3분의 1에 상당한 연간 1억개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니켈수소 2차전지의 일본 이외에서의 생산은 처음인데 앞으로 유럽에서의 생산도 검토하는 등 3개사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할 계획이다.

〈國 內〉

정부는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 및 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이 지원할 57개 공업기반기술개발과제와 134개 산업은행 생산기술개발자금과제 등 총 191개 94년도 신규기술개발과제를 확정, 공고했다.

또 지난해 공고했던 과제에 대한 신청결과를 심사, 총 62개 과제에 7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世 界〉

태국에 진출한 일본계 제조업체의 올해 설비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콕 일본인상공회의소가 진출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AV(음향·영상)기기 및 가전등 전기·전자기계분야가 투자의 견인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이들 제조업체의 설비투자액은 전년실적비 97.2% 증가한 518억2200만바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조업 주력 8개 업종 가운데 6개 업종이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전기·전자기계의 투자가 가장 많아 전년비 6배 이상에 달하는 374억3300만바트가 될 전망이다.

〈國 內〉

정부는 공업발전법상의 지원대상에 엔지니어링산업, 컨설팅업, 영상산업 등 지식집약산업이나 공업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등 적용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미

래지향적인 정책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0년주기로 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동시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첨단기술부문 발전시책도 수립, 시행키로 했다.

〈世 界〉

美제너럴 모터즈(GM)사는 중국에 전기자동차를 소개할 계획이다.

GM은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미국영토 밖으로 전기자동차를 반출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중국은 최근 발표한 새로운 산업정책에서 외국자동차메이커들이 연료절약형 자동차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해 주길 강하게 희망했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전선수입과 관련, 브라질 및 베네수엘라의 △Naked aluminium cable with or without steel core(HS 761410000, 761490000)와 △美國과 스페인의 Telephone cable(HS 854449500)에 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이들 2건의 덤핑조사 개시사유로 이들 제품의 수출가격(FOB)이 수출국 국내판매 가격보다 낮으며 최근의 높은 수입 증가율로 아르헨티나 국내 생산업자가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호 주〉

호주 최대의 자원개발회사인 BHP는 발전소 건설을 핵심으로 한 엔지니어링사업에 본격 진출키로 했다.

동사가 세계각지에서 탐사한 가스를 연료로 현지에서 발전플랜트를 건설해 전기를 판매키로 했다.

앞으로 경제성장으로 전력공급이 수요에 따르지 못할 우려가 큰 아시아와 남미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國 內〉

정부는 중소기업 자동차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중 5천억원을 투입, 1500여개 업체를 지원키로 했다.

상공자원부의 올 하반기 중소기업자동차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자동차사업 자금지원 대상업체는 제조업전입률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중 자동차투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업종영위업체 △종업원 20인 이하의 기술집약형 소기업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 △수출기업자동차사업 대상업체 △ISO 9000 인증 획득업체 등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印 尼〉

인도네시아 최초의 민간발전소에 대한 주요 선진국 8개 은행들의 용자범위가 약 20억달러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日經金融新聞이 보도했다. 이 수치는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 용자로는 최대 규모에 속하는 것이다.

용자 대상은 東 자바州 파이튼 지구에서 오는 98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이다. 61만5천킬로와트급의 발전기 2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 공사비 26억달러 규모의 대형 프

로젝트다.

<世界>

美 GE社 등으로 이뤄진 美-체코 컨소시엄은 체코현지에 10억달러에 달하는 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 착수, 첨단 복합화력 발전소(IGCC)기술이 사용될 예정으로 프라하 북서부에 위치하게 될 이 발전소는 3백50MW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중 1백30MW는 소비하고 나머지는 현지 에너지망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GE, 텍사코 디벨롭먼트, 미션에너지 등 美기업들과 체코페트룰, 모스데카 우엘나스폴 등 체코기업들로 구성된 이 컨소시엄은 건설자금 10억달러의 30%는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 자금은 국제금융 시장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94. 8월

<世界>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럽 최대의 중전기 제조업체인 ABB(Asea Brown Boveri)社가 러시아에 2개의 합작법인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ABB社가 이번에 러시아에 신설한 현지법인은 변전 및 배전설비를 생산케 되는데 러시아 시장의 본격적인 진출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수력발전 개발로 발전능력이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는 약 9,500만弗을 투입해 95년

3월과 10월에 총 5기의 가스터빈 발전소 설립으로 火力發電 능력을 165MW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사업은 프랑스 전력회사인 EDF와 합작으로 추진될 계획인데 코트디부아르는 최근 하루에 5만 배럴 상당의 유전 및 가스 탐사에 성공해 이 가스를 전력생산에 활용할 예정이다.

5기 가스터빈 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코트디부아르는 자국내 전력 자급자족을 통해 제조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인근 서부아프리카제국으로 전력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國內>

정부는 勞使紛糾과 관련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애로기업에 대한 자원 및 확인요령을 일부 수정했다.

상공부는 자체분규 없이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과 특별한 자체 귀책사유 없이 노사분규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임금체불 및 부도우려에 대비해 운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파라과이 정부와의 공동 프로젝트이며 올 9월 2일부터 가동예정인 Yacyreta 수력발전소의 운영 및 유지권의 민영화 추진을 밝혔으며 민영화를 위한 국제입찰은 가동일인 9월 2일 이전에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Yacyreta 발전소에는 총 20개의 터빈이 설치될 것이며 이 발전소가 가동되면 아르헨티나 전력공급

이 40%가 증가된다.

<國內>

에너지관리분야의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기자재에 대한 등급부여제도가 신고제도로 전환돼 등급표시절차가 간소화되고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채용제도가 선임제도로 바뀐다.

또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며 양도·합병에 대한 인가제도가 신고제로 완화된다.

<世界>

日本 히타치社의 산업용 에어컨 스페인 현지생산법인인 스페인 히타치社가 EU시장 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을 진출목표로 설정했는데 현재 중점 공략수출대상국은 臺灣,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알려졌다.

이 스페인 공장은 일본 히타치社가 Pt.17억(약 1,300만弗)을 투자해 93년 5월부터 가동한 산업용 에어컨 생산 공장으로서, 생산규모는 연간 8천대이다. 그러나 지난해 세계적인 불황에 따라 93년 생산대수는 4천대에 그쳤으며 매출액은 Pt. 20억을 기록했다.

금년도에는 동남아시아 진출을 목표로 매출은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Pt. 80억, 생산은 1만대로 설정했으며, 매출목표의 25%인 Pt. 20억을 대동남아시아 수출목표액으로 설정했다.

<日本>

일본의 마쓰시다(松下)전기산업은 중국현지에 용접기계생산 합작기업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회사 대변인은 중국측 합작선은 唐山 전자장비공장이며 동사는 합작기업의 납입자본금 8억엔중 60%를 출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합작기업인 唐山 마쓰시다 산업장비社는 9월중 河北省唐山개발지구내에 설립, 194명의 종업원 규모로 내년 3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國 內)

中小企業의 품질경영체제를 진단하고 ISO 9000인증획득을 지도할 품질경영진단사 자격제도가 시행된다. 공업진흥청은 EU 지역에서 ISO 9000인증획득 의무화 품목이 늘어나고 동남아 지역도 무역거래 조건으로 ISO 9000인증 요구가 급증하는 등 ISO 9000인증수요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ISO 9000인증획득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요원이 시급하다고 판단, 품질경영 촉진법에 품질경영 진단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世 界)

유럽 유수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강·발전소등 기간산업플랜트 수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상해발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클레심社는 上海寶山製鐵所 제2기 공사의 핵심사업인 전기로건설을 수주했으며 이어 영국의 제너럴일렉트릭컴퍼티(GEC)도 浙江省의 대형화력발전을 건설키로 중국측 발주처와 합의했다.

전력부문에서도 영국 GEC社의 경우 浙江省의 嘉興火力發電所 2기 공사를 華東電力集團등과 공동으로 추진, 프랑스전력공사(EDF)는 大亞灣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성공

리에 마무리지는데 이어 최근에 중국 수력발전의 핵심사업인 二灘수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했다. 또한 독일의 지멘스는 10억마르크상당의 화력발전소 수주를 준비중에 있다.

(日 本)

일본의 三陽電機製作所는 97년까지 태국공장의 변압기 생산량을 50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도 전년대비 25% 증가한 25만대를 생산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대미수출용 버너용 점화트랜스 모듈을 태국으로 이전할 방침이며 대 구주 수출용도 조만간 이전할 계획이다.

태국공장은 내온트랜스와 살충기용 트랜스를 제조하고 있는데 규모는 2,800m²이며 종업원은 70명이다.

(日 本)

일본 히타치製作所는 엔高出에 대응키 위해 공작기계·에어컨 등의 동력원인 소형 범용모터 생산을 일본에서 태국으로 집약한다.

히타치는 태국에서 低價의 單相品을 중심으로 연간 40만대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약 20억엔을 투입해 새 공장을 건설, 오는 96년부터 가격이 높은 三相品도 생산할 계획이다. 97년에 單相品과 三相品을 합해 연간 1백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있다.

특히 三相品에서 표준형은 태국으로 생산이전, 거의 전량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일본내 생산은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특별 사양제품에 한정할 방침이다.

히타치는 현재 태국에서 현지기업과의 합작사인 히타치 인더스트리얼테크놀로지 타이랜드(HITT)

社를 통해 주로 단상모터를 생산중이다. 새 공장은 방콕근교에 6만 4천m²의 부지를 구입, 올해안에 착공해 96년중 가동할 계획이다.

(日 本)

일본의 혼다기연공업은 중국 福建省福州市의 발전기메이커 關東電機(집단)肥份유한공사와 합작으로 이 시에 소형 가솔린엔진발전기를 생산·판매할 새회사를 9월중 설립키로 했다.

오는 95년 중반부터 초년도 4만대 정도로 생산을 시작 98년엔 연간 8만대까지 증산하여 중국내 판매는 물론 아시아 각국에 수출할 계획이다.

일본기업이 소형·발전기분야에서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처음이며 합작회사명칭은 '關東-本田發電機組유한책임공사'로 자본금은 6백만달러로 혼다가 60%, 나머지를 關東電機가 출자한다.

(世 界)

유럽최대의 태양광 발전소 PV Toledo가 최근 가동을 시작했다.

스페인 중부지역에 소재한 발전소는 태양에너지와 수력을 병용 발전하며 연간 발전량이 1.7GWh로 스페인 Endesa, 독일 RWE Energie, 유럽연합, 공동투자 1천 1백 87만 \$를 투자 건설된 것이다.

한편 PV Toledo는 초기 투자비가 재래식 발전소의 초기투자비에 약 10배에 이르며 모듈표면에 누적되는 다량의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결점이 있으나 강우 부족과 일광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